

‘현우경’ 이야기 (4)

몸통에 음경만 있는 아기

옛날 한 부자가 살았다. 그에게는 아내와 다섯 명의 딸이 있었다. 그의 아내가 여섯째를 임신했을 때 그 부자는 갑작스럽게 죽고 말았다. 그 나라에서는 가장이 죽고 재산을 물려받을 아들이 없으면, 모든 재산을 나라에 바쳐야만 했다. 그의 딸들은 생각했다.

“어머니가 임신 중인데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 모른다. 만약 아들이 태어난다면 우리 집 재산은 모두 동생의 것이다.”

“지금 어머니가 임신 중입니다. 만일 딸이 태어나면 모든 재산을 임금님께 바쳐야 하나, 아들이 태어나면 그가 재산의 주인이 돼야 합니다. 어머니가 해산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왕은 딸들의 청을 수락했다. 몇 달이 지나 부자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태어

난 아이는 눈 귀 코 혀 손과 발이 없고, 몸통에 음경만 있을 뿐이었다. 딸들을 왕에게 찾아가 이 사실을 고했다. 왕은 생각했다.

“눈 귀 코 혀 손과 발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여야만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결국 왕은 딸들에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나라에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 사실은 온 마을에 퍼져나갔고, 이웃에 사는 한 여자는 부처님을 찾아가 이 사실에 대해 물었다.

“부처님 어찌하여 눈 귀 코 혀 손과 발도 없는 사람이 부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아주 먼 옛날 단야세질과 시라세질 형제가 살았다. 형인 단야세질은 어릴 적부터 정직하고 성품이 올곧기로 온 나라에 소문이 자자했다.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단야세질을 신뢰하고 좋아했다. 단야세질의 어린



삼화·강병호

성품은 왕에게까지 알려져, 왕은 단야세질에게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판결을 맡겼다. 어느 날 그의 아우 시라세질이 단야세질을 찾아와 말했다.

“얼마 전 한 상인이 제게 많은 돈을 꾸었습니다. 그 상인은 바다에서 돌아오면 돈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병에 걸려 몸이 쇠약하니, 만약 제가 잘못되더라도 아들이 꼭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형님이 증인이 돼 주십시오.”

얼마 후 동생 시라세질은 세상을 떠났다.

돈을 빌렸던 상인도 바다에서 돌아오게 됐다. 시라세질의 아들은 그 상인이 바다에 나가 많은 금은보화를 발견해 돌아왔다는 소문을 듣고 상인을 찾아갔다.

“제 아버지께 빌려 간 돈을 갚아주시십시오.”

상인은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온 사이, 이자가 붙어 갚아야 할 빚이 훨씬 많아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상인은 시라세질의 아들에게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말 한 뒤, 단야세질의 아내를 찾아갔다. 상인은 단야세

질의 아내에게 금 10만 냥을 주며 단야세질에게 자신이 돈을 빌려가지 않았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다. 단야세질의 아내는 고민 끝에 단야세질에게 말했다.

“지금 상인이 저에게 찾아와 자신의 편에서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상인의 편을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단야세질은 아내의 말에 크게 화를 내며 절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인은 아내에게 더 큰 돈을 주며 다시 부탁했다. 아내는 다시 단야세질에게 말했다.

“아이들이 지금 건강도 좋지 않은데, 약을 살 돈도 없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저의 부탁을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단야세질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결국 시간이 흘러 판결의 날이 다가왔다. 시라세질의 아들은 단야세질에게 말했다.

“큰아버지, 저 사람은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 돈을 빌려갔습니다. 큰아버지께서

는 그 광경을 모두 지켜보셨으니, 저 자에게 돈을 갚도록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단야세질은 조카에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나는 그런 광경을 지켜본 일이 없고, 이런 사실도 모른다.”

시라세질의 아들은 단야세질의 말에 크게 화를 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조카에게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까. 큰아버지의 죄값은 다음 생에라도 꼭 치를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지금 부처님에게 태어난 그 남자아이는 과거 단야세질의 모습이다. 한 번의 거짓말로 인해 지옥에 떨어져 고통 받아 몸통만 있는 채로 태어난 것이다. 다만 평소 남들에게 보시하는 것은 좋아해 부처님에게 태어났다. 그러나 함부로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84@hyunbul.com

대장경 속 우화 6 - 새똥이 빠진 국물 - 구성·김흥인

Comic strip panels showing a chef and a customer's interaction, with dialogue bubbles and illustrations.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Includes an image of a wooden hot water bath machine.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Includes an image of a product bottle.

100% 국내산 참옷나무 진액 참옷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옷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Includes an image of product bottles.